

전북도의회 5분 발언

“농·산지 임차인 보호 법적 기반 마련해야”

강용구 의원, “임대차농지 절반 불구 특별 보호규정 미흡”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지·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임대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또한 산지는 전반적으로 임대차 비율이 낮음에도 수익을 위한 산지 활용 사례가 적어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거의 제로 상태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지나 산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농지법 제24조 제1항에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지임대 기간을 최소한 5년 내지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농지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추후 임차인에게 농지 취득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강 의원은 “산지의 경우 최근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농촌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삼라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도가 나서서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농번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

평화당 김중희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중희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 수확,



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 수확,

평화당 전북도당 당직 임명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창당 이후 제3기 임정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민생, 개혁, 평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완성해 나갈 당직자를 영입보완을 통해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당직자를 발표했다.

발표된 당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형철: 사무처장(전 전북도의회), ▲박혜숙: 총무국장(사무처장대우, 전 전주시의원), ▲민소인: 총무부장, ▲양형찬: 조직국장, ▲이성국: 조직부장, ▲김병용: 대외협력국장(전 조직국장), ▲대변인: 홍승채(전 서울시의원) /김진성 기자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경험 있다.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송하진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의원들의 5분발언을 경험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 농어촌 정착 지원 확대를”

김철수 의원 “다문화 가정 갈등문제, 사회문제 비화 가능성 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결혼 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는 전체 인구의 0.58%에 해당하는 1만900명(2017년 기준)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의 이주여성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부부간,



고부간 또는 이웃과 여러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결혼이민자들의 이혼 건수는 2015년 422건, 2016년 447건, 2017년 356건으로 도내 전체 이혼 건수의 평균 10.8%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비

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북도는 이주 여성의 절반가량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제대로 농어촌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농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여성들의 각 나라 음식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황의탁 의원 “태권도문화엑스포 정상 개최를”



전 세계 각국에 전북을 알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온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를 일부 직원의 수사와 운영비 지원근거 때문에 2019년도 대회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이 2019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 의 정상적인 개최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황 의원은 전북도가 경찰수사와 상근직원 지원근거를 이유로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것은 대회개최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는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본 대회 대회장인 도지사가 신뢰받고 존경받는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조직위를 재구성하여 2019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대회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김기영 의원 “전북도, 곤충산업 활성화 노력을”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제362회 본회의 5분자 유발언을 통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불과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곤충은 인간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방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으로 재평가 되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도 2009년 1,570억원에서 2015년 약 두배 수준인 3,000억원대로 성장했다”며 전북도에 곤충산업 관련조직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곤충종자를 포함시킬 것, 곤충을 식품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성 기자

나와, 영화 보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동상영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 전주라운지

5. 2 (목) 개막식

19:00 ~ 나몰라: 작은 갯물의 도시

5. 3 (금)

19:00 ~ 웅알스 (GV: 갈라 및 상영 후 공연)

5. 4 (토)

13:30 ~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 뮤직 퍼포먼스

18:30 ~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 뮤직 퍼포먼스

5. 5 (일)

14:00 ~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19:00 ~ 미드 90

5. 6 (월)

14:00 ~ 어린 의뢰인

19:00 ~ 뽀뽀 아만다

5. 7 (화)

19:00 ~ 할아버지는 30살 (GV)

5. 8 (수)

19:00 ~ 글로리아 벨

5. 9 (목)

19:00 ~ 미션 임파서블: 루벤

5. 11 (토) 폐막식

19:00 ~ 스킨

* 전주시민, 전주지역 대학생 할인
: 전주 동 상영 4,000원 할인(3,000원) / 폐막식 8,000원 할인(7,000원) / 현장 예매 시 동반 1인까지 할인 적용(신분증 및 증명서 필참)

* 온라인 예매는 공식홈페이지(www.jeonjufest.kr), 현장 예매는 전주라운지 현장대표소에서 가능합니다.

* 개막식/폐막식 상영시간은 개막식/폐막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Jeonju 20
Intl. Film
Festival